

사회적 질(質)에 대한 만족도가 제주도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강재정*·조부연**

- I. 서론
- II. 문헌적 고찰
- III. 연구모형과 조사방법
- IV. 실증적 분석
- V.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사회적 질(social quality)에 대한 만족도가 제주도민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읍면지역별로 계층적 층화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된 총 987개의 설문을 기반으로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변수(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 소득인식별, 지역별, 종교별, 결혼 여부)에 따라 삶의 행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질이 삶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하위요인으로는 문화교육, 복지환경, 편의시설, 행정서비스, 이웃관계요인 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적 만족도도 행복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만족도를 추가 변수로 고려한 경우에도 사회적 질의 변수들의 영향력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주저자.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제주도민의 행복을 하나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세분 집단별로 행복에 대한 만족이 유의미하게 다른 상태임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섬세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적 질의 하위차원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적 질의 차원 중 위생요인 부분은 당연적 품질로 이해되어야 하며, 지역 및 지자체가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함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질과 함께 경제적 행복도 역시 제주도민의 삶의 행복에 유의미한 변수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주제어 : 행복도, 삶의 질, 경제적 행복, 사회적 질

I. 서론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정신적인 삶의 질이나 행복에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행복은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가정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이다.¹⁾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2013년 1월 8일)에서는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6개국의 직장인과 학생들을 상대로 생활 만족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인도인의 생활 만족도가 9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인도네시아와 중국, 베트남, 태국 등이 80% 안팎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은 가장 낮은 60.7%로 조사되었다.²⁾ 이러한 조사에서 보듯이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우위인 한국이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태국보다 행복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1970년대에 등장한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을 들 수 있다. 1974년 미국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Easterlin)은 국내총생산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평균적 행복감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삶의 만족과

1) 황규선, 『강원도 행복지수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12-17), 2012.

2) 국민일보, 2013년 1월 8일자.

행복을 측정함에 있어 경제학적 접근법을 비판하였다.³⁾

일반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행복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소득에 비해 행복도가 높게 나타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낮은 국민소득으로도 행복도가 높은 국가들도 있다.⁵⁾ 경제적으로 가난한 부탄의 인간개발지수는 2007년 기준 세계 131위에 불과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매우 높으며, 2009년 호주의 인간개발지수는 세계 4위이나 삶의 만족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직업만족도에서는 세계에서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⁶⁾ 1960년대 89달러에 불과하던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2009년에는 거의 200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영국 신경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에서 세계 143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지수 결과에서의 한국의 순위는 68위(2006년)에서 102위(2008년)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소득의 증가나 물질적인 지표들이 행복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며, 행복을 전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문화적 지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의 개념은 공동체의 안녕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1990년 중반 유럽에서 등장하였다. 사회적 질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생활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시각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일련의 사회적 지표들에서 나타나는 객관적 생활조건이 주관적인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기존연구에서 삶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이론적 근거의 부족으로 정책 분야에서는 삶의 질의 유용성에 대하여 무시되곤 하였다.⁷⁾ 특히 정책의 적용 측면에서 삶의

3) Easterlin, R.,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David, R., and Reder, R.(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4) 김윤태, 『행복지수와 사회문화적 분석』, 『한국문화경제학회』 제13권 제1호, 2010.

5) Osburg, L., *The Relevance of Objective Indicators of Well-being for Public Policy*, Annual Meeting of the Canadian Economics Association, 2004.

6) Blanchflower, D. G.·Oswald, A. J., “Happiness and the Human Development Index: The Paradox of Australia”, *Australian Economic Review*, 33(3), 2005.

7) Phillips, D., *Quality of Life: Concept, Policy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2006.

질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지표들의 적절성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내용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특정 이익에 부합될 수 있다는 중립성 문제까지 거론되기도 하였다.⁸⁾ 그러나 사회적 질은 여러 영역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매우 발전된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질은 본질적 특성과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복지의 개념과 정책, 그리고 실천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포용하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의 행복과 삶에 관련성이 높고 폭넓은 연관성을 갖추고 있다.⁹⁾ 따라서 사회적 질의 연구 내용은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접근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질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인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면서, 연구 모집단으로 제주도민을 선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제적 만족도가 추가되는 경우에 사회적 질이 삶의 행복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경제적 만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까지 연구되었기 때문이다.

II. 문헌적 고찰

1. 삶의 질과 행복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에서 삶의 질의 정신적인 측면에 초점을 둘 경우에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나 행복(Happiness)을 ‘삶의 질’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세 가지 입장에서 정리할 수 있다.¹⁰⁾ 첫째, 삶의 질을

8) Walker, A.C.·Maesen, L.J.G., “Social Quality and Quality of Life”, The Hague, London,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4.

9) 앞의 글, 김윤태, 2010.

10) 김승권·장영식·조홍식·차명숙,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2008-13), 2008.

외부의 객관적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이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이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 구매능력, 교육수준, 여가시간, 건강상태 등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해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둘째, 삶의 질을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수입, 건강, 사회적 지위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삶의 객관적 상황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셋째, 개인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의는 인간의 삶의 질이 물질적, 환경적 외부 요인을 대하는 내적인 태도나 정서 등의 성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이와 같이 삶의 질에 대한 개념 규정은 다양하므로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라고 할 때는 경제수준, 복지, 의료, 교통, 범죄율 등 사회의 객관적인 지표와 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긍정적 심리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연구자들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 지표들을 구축하여 왔는데, 주관적 행복과의 핵심 관련요소들은 가족 관계, 재정 상황, 고용 상태, 커뮤니티 유대, 친구를 가지는 것, 건강, 개인적 자유 신념, 개인적 가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김승권 외¹¹⁾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요인이다, 경제적 요인에 대한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관련이 없다는 연구, 그리고 일정수준까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소득과 행복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직감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¹²⁾ 반면에 경제적 조건이 삶의 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조건보다 직업의 유무, 가족관계, 건강,

11) 김승권·장영식·조홍식·차명숙,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2008-13), 2008.

12) Hagerty, M. R·Veenhoven, R.,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64(1), 2003.

교육, 사회적 연대, 제도의 질, 소득 불평등 등과 같은 비경제적 변수들이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변화에 따른 가족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에서 경제적 발전이 전통적 가치들의 붕괴, 가족 네트워크들의 파괴, 과도한 소비자 중심주의로 이어짐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적인 조건은 일정한 정도까지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일정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Frey and Stutzer¹³⁾의 연구에 의하면 연간소득 US \$10,000달러 이상이면 소득증가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한계증가는 하락한다는 것이다. Diener 등¹⁴⁾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입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간소득 US \$15,000달러 이하인 집단에서 극대화되며, 15,000달러가 넘으면 행복감이 거의 비슷해진다.¹⁵⁾

둘째는 사회 심리적 요소이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존중감이 높고, 삶에 대한 자기통제감이 높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며, 외향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⁶⁾ 또한 국가별로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가 행복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과 같은 집단주의문화가 강한 국가보다는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서구국가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¹⁷⁾ 셋째 요인은 개인의 신체적 요인이다. 신체적 요인은 건강과 외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건강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¹⁸⁾ Hamermesh and Abrevaya¹⁹⁾는 여성

13) Frey, D. S.·A. Stutzer, *Happiness and Economics*,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14) Diener, E.·Suh, E.·Lucas, R.,·Smith, H.,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1999, pp.276-302.

15) Inglehart, R.,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16) Myers, D.·Diener,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Vol.6, 1995.

17) Diener, E.·Suh, E.·Lucas, R.·Smith, H.,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1999.

18) Myers, D., *The Pursuit of Happiness*, New-york, :Avon Books, Nord, E.(2000). World Health Report 2000, A brief Critical Consumer Guide,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1993.

19) Hamermesh, D. S.·J. Abrevaya, *Beauty is the Promise of Happiness?* Institute for

인 경우엔 아름다움(beauty)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Kirkcaldy et al.²⁰⁾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수준에서 건강관련 지출비용이 많은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요인은 사회관계적 요소이다. 개인의 행복은 그 개인의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사회적 지지와 관계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²¹⁾ 가족, 친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관계가 많을수록 건강²²⁾하며, 한국 사회에서도 공식적 단체가입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 가입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다섯 번째로 제도적 요소를 들 수 있다. 제도적 요인이란 구성원이 속해있는 나라의 제도적 특징을 의미하는데, Inglehart²⁴⁾에 의하면 특정국가의 민주주의의 지속연수가 전체적인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선행요인은 환경적 요소이다. 환경적 요인은 구성원이 속해있는 자연환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Bubolz et al.²⁵⁾은 생태론적 시각에서 삶의 질이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연적 측면을 포함하여 측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자연적 환경들이 주관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은 있지만 이에 대한

the Study of Labor, IZA DP No. 5600, 2011.

20) Kirkcaldy, B.·Furnham, A.·Veenhoven, R., "Health Car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Nations," in Antoniou, A.S.G. & Cooper, C. L.(eds) *Research Companion to Organizational Health Psychology*, Edward Elgar Publishers, Chltenham, UK, 2005, pp.393-413.

21) Rudnick, A.·Kravetz S., The Relation of Social Support-Seeking to Quality of Life in Schizophrenia.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9(4), 2001.

22) Myers, D.·Diener,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Vol.6, 1995.

23) 박길성,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아세아연구』 45(2), 2002.

24) Inglehart, R.,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5) Bubolz M, Eicher J. B, Evers S. J, Sontag M. S., A Human Ecological Approach to Quality of Life: Conceptual Framework and Results of a Preliminary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7, 1980, pp.103-136.

분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학자들은 삶의 질이 그들의 삶에 대한 개인적 만족이나 행복보다 더 많은 것들과 관련되며, 시민으로서 그들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3. 사회적 질과 행복

삶의 질 접근의 핵심적 주제인 가족관계, 재정상황, 생활환경, 고용상태, 커뮤니티 유대, 친구, 건강, 개인적 가치, 웰빙 등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은 정책적이며 규범적인 이슈들을 피하여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양적인 결과들을 보고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조사프로그램으로는 방법론적으로 탐색될 수 없는 서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다양한 개인들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책적 적용 측면에서 삶의 질에 기초하여 구성된 지표들의 내용들은 늘 질문을 받기 쉽고, 그러므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좋은 논쟁거리가 되고, 때로는 특정 이익에 부합되도록 조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²⁶⁾ 이와 같이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정책분야에서는 그 유용성이 간과되었다.²⁷⁾

이러한 비판에 따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등장하였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등장한 ‘사회적 질’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사회공동체의 안녕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특징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와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는 결국 한 사회 내부의 사회적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질 연구의 목적은 일련의 사회적 지표들을 통하여 객관적인 생활

26) Walker, A.C.·Maesen, L.J.G., “Social Quality and Quality of Life”, The Hague, London,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4.

27) Phillips, D., *Quality of Life: Concept, Policy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2006.

조건들의 변화와 주관적인 웰빙을 측정하는 데 있다. 또한 사회적 질은 여러 영역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매우 발전된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질은 일부는 본질적 특성으로, 또 일부는 이론에 근거한 사회경제 지표를 가진 복지의 개념, 정책, 실천의 결합하에 일상의 삶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모든 정책과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연관성을 갖추고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질의 중요성을 인식한 퍼트남²⁸⁾은 사회적 자본이 바탕이 되는 구성원간의 상부상조, 협조, 신뢰, 제도적 효율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극대화되고, 파벌주의, 인종주의, 부패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환경이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유럽의 사회적 질 재단(EFSQ;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은 사회적 질을 “자신의 안녕과 개인적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에서 자신의 공동체에서 사회경제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적 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동체가 개인적, 사회적 안녕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의 측정은 주로 개인적 차원의 계량적, 객관적 지표에 관심을 가진데 비해, 사회적 질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토대로 자원, 연대감, 접근과 참여, 역량 강화 등 네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측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²⁹⁾

사회적 질의 측정에서 토대가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 안정성(socio-economic security)은 인간이 생활을 하는데 물질적 자원을 사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안정, 빈곤으로부터 안전, 질병과 재해, 실업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포함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직업의 안정성, 빈곤율, 주택보급률,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하위

28) Putnam, R.,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huster, 2000.

29) Maesen, L.J.G. van der·Walker, A.C.,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Theoretical State of Affairs*, Amsterdam, EFSQ, 2002.

요인으로 제시된 사회응집성(social cohesion)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사회적 결속과 연대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의 신뢰, 사회제도나 기관에 대한 신뢰, 이타심, 시민적 참여의식, 다원주의와 관용성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로 사회포용성(social inclusion)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가치와는 무관하게 단지 사회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의 다양한 제도나 기회구조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사회포용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에 대한 가입률, 남녀 간 임금격차나 공직 진출률의 차이, 노동시장 내 장기실업자의 비율과 비자발적으로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비율, 노숙자수, 사회보호시설 수감자수, 이웃이나 친구, 친지와와의 접촉의 빈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 하위요인인 사회역량강화(social empowerment)는 사회구성원이 정치적인 의무와 권리라는 형식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정치적 과정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차원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문자해독률, 신문, 인터넷, 문화예술시설의 활용정도, 각종 투표율과 자발적 결사체의 참여정도,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인 의사결정기제의 존재유무,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의 포괄성,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의 규모, 정신병 유발률과 자살률 등이 포함된다.

이재열³⁰⁾은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는 불신의 심화, 계층 간 포용의 감소, 사회적 배제의 심화, 사회적 권한이양의 감소, 무기력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소득수준과 교육기회는 높아지고 있으나 비정규직이 급증과 소득의 양극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안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남녀 간의 성차별은 감소하고 있으나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과 계층 간의 차별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

30) 이재열, 『한국사회의 질의 변화와 전망』, 정운찬, 조홍식 편, 『외환위기 이후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대출판부, 2007.

와 같이 한국에서의 사회적 질의 저하는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06년 사회적 질의 지표를 활용하여 세계주요 10대 도시의 시민 1,000명의 면접조사를 통해 매우 행복하거나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답변한 주관적 행복감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런던 시민이 79.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스톡홀름, 토론토, 뉴욕의 순서로 나타난 반면 서울시민의 행복도는 56.3%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³¹⁾ 런던의 경우를 보면 사회경제적 안전과 사회적 역량강화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결속력과 사회적 포용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²⁾ 사회적 질의 측정이 개인들이 속한 지역사회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도민의 행복도에 대한 이해도 사회적 질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Ⅲ. 연구모형과 조사방법

1. 연구모형의 설정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서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전제로 다양한 질문에 대한 개인들이 응답을 하게 함으로써 정책적인 의미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특히 행복이라는 개념이 주관적으로 감지되는 특성으로 인해, 삶의 질에 기초하여 구성된 지표들에 대하여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며, 특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정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행복도를 특정지역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주체로서 느끼는 행복감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질(social quality)과 삶의 행복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다. 사회적 질은 4가지 사회경제적 안정, 사회적 결속력, 사회적 포용, 사회적 역량강화의 차원으로 구

31) 김경동 외, 『세계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서울복지재단, 2006.

32) 앞의 글, 김승권 외, 2008.

분할 수 있지만,³³⁾ 여기서는 서울복지재단³⁴⁾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교육, 복지환경, 편의시설, 생활안전, 행정서비스, 그리고 이웃관계요인으로 새롭게 구분하였다. 서울복지재단에서는 경제, 문화교육, 복지, 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안전, 도시행정, 공동체생활 등의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도시 간 비교연구를 하면서, 개별항목별로 사회적 질의 4가지 차원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화교육, 생활안전의 일부는 사회경제적 안정과, 이웃관계와 생활안전의 일부요인은 사회적 결속력과, 편의시설과 복지환경은 사회적 포용과, 문화교육과 행정서비스의 일부는 사회적 역량강화의 차원과 결부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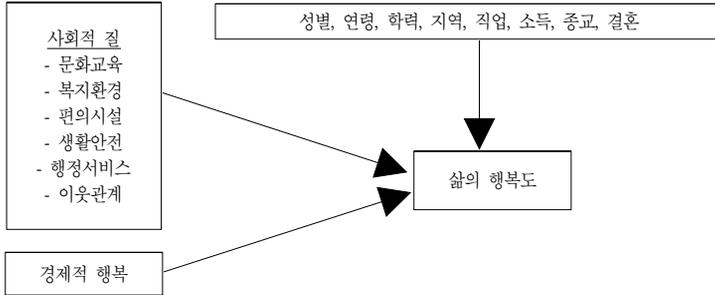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질이 전반적 행복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적 행복도의 변수가 투입되는 경우에 사회적 질이 삶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구통계적 변수들인 성별,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직업 등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Ryff and Keyes³⁵⁾는 행복의 경험을 규명하는데 있어 인구통계학적 집단 간의 차이가 중요한 연구의 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모델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문화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질과 인구통계적 특성이 삶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경제적 만족도를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연구한 이유는 경제적 행복도가 삶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과연 사회적 질의 변수와 삶의 행복도와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행복도가 추가되는 경우에도 사회적 질의 변수가 삶의 행복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33) Maesen, L.J.G. van der·Walker, A.C.,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Theoretical State of Affairs*, Amsterdam, EFSQ, 2002.

34) 서울복지재단, 『세계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2006.

35) Ryff, C. D.·Keyes, C. C.,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9(4), 1995, pp.719-727.

<그림 1> 연구모형



- H 1 :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삶의 행복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 2 : 사회적 질은 삶의 행복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2-1 : 문화교육요인은 삶의 행복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2-2 : 복지환경요인은 삶의 행복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2-3 : 편의시설요인은 삶의 행복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2-4 : 생활안전요인은 삶의 행복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2-5 : 행정서비스요인은 삶의 행복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2-6 : 이웃관계요인은 삶의 행복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3 : 경제적 만족도가 추가되더라도 사회적 질의 요인은 삶의 행복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방법

사회적 질의 측정은 세계주요도시의 행복도 및 경쟁력을 분석한 서울 복지재단³⁶⁾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삶의 행복도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Diener et al.³⁷⁾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경제적 행복도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적 행복 지수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측정척도는 리커트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삶의 행복도에 차이가 있는가와 사회적 질이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내권을 포함하여 읍면지역별로 나누어 계층적 층화표본을 추

36) 서울복지재단, 앞의 글, 2006.

37) Diener et al., 앞의 글, 1985.

출하였다. 설문지는 설문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읍면지역 별로 30부 이상이 추출되도록 하고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3년 1월 15부터 2월 10일까지 약 25일 정도 소요되었다. 이 중에서 응답이 부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 987개의 설문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2>는 응답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성이 452명, 여성이 535명 응답하였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452	45.8%	결혼 여부	미혼	310	31.4%
	여성	535	54.2%		기혼	551	55.8%
연령	10대	36	3.6%	종교	이별	50	5.1%
	20대	184	18.5%		사별	60	6.1%
	30대	213	21.6%		기타	16	1.6%
	40대	241	23.8%		기독교	224	22.7%
	50대	194	19.7%		불교	248	25.1%
	60대	65	6.6%		기타	48	4.9%
	70대 이상	54	5.5%		없음	467	47.3%
학력	중졸	98	9.9%	지역별	제주시내	407	41.2%
	고졸	277	28.1%		애월	43	4.4%
	전문대졸	220	22.4%		한림	47	4.8%
	대학졸	349	35.4%		한경	22	2.2%
	대학원 이상	43	4.4%		조천	48	4.9%
직업	농수산	82	8.3%		구좌	41	4.2%
	자영업	221	22.4%		서귀포시내	152	15.4%
	사무원	137	13.9%		대정	43	4.4%
	육체노동자	38	3.9%		안덕	38	3.9%
	숙련노동자	7	0.7%		남원	44	4.5%
	영업직	59	6.0%		표선	50	5.1%
	전문직	100	10.1%		상산	52	5.3%
	학생	97	9.8%		소득별	2백 만 미만	528
	주부	67	6.8%	2백~3백		229	23.2%
	무직	66	6.7%	3백~4백		129	13.1%
기타	113	11.4%	4백~5백	45		4.6%	
소득 인식	매우 낮음	122	12.4%	5백~6백		23	2.3%
	낮음	254	25.7%	6백~7백		13	1.3%
	보통	551	55.8%	7백~8백		10	1.0%
	높음	58	5.8%	8백~9백		1	0.1%
	매우 높음	2	0.2%	천만 원 이상	9	0.9%	

3.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사회적 질과 경제적 행복도, 그리고 삶의 행복도는 다항목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연구변수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크론바알파값을 산출하였다. <표 3>은 사회적 질에 대한 차원을 구분하기 위하여 베리맥스 방식으로 요인분석한 결과이다. 사회적 질은 6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거주지역의 생활비는 비싸다’라는 항목은 제외되었다. 이 항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적절한 항목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제주도와 같은 소규모 지역에서는 차별적인 항목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분석결과 기준

<표 3> 사회적 질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측정항목	요인성분					
	복지 환경	문화 교육	편의 시설	생활 안전	행정 서비스	이웃 관계
거주지역에서의 양육 및 보호시설의 만족도	.759	.164	.097	.102	.139	.117
가족의 위기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	.754	.193	.039	.118	.106	.122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의 제공	.747	.113	.093	.107	.173	.104
거주지역의 보건 및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	.675	.119	.128	.175	.178	.102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짐	.152	.642	-.106	.143	-.026	.161
거주지역에서의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의 여건	.403	.628	.044	.051	-.096	.158
거주지역에서의 방문객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것들이 있음	.105	.623	.125	.090	.139	.03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	.461	.517	.208	.117	.081	-.113
거주지역의 상점과 편의시설의 존재여부	.074	.141	.764	-.016	.098	.082
거주지역에서의 대중교통에 대한 편의성	.318	-.109	.729	.119	-.064	.081
인터넷을 통한 도시정보에 대한 접근성	-.215	.493	.527	-.008	.290	-.041
거주지역에서 밤거리에 대한 안전성	.185	.119	.056	.760	.147	.061
교통, 화재 등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	.159	.212	.113	.716	.160	-.042
거주지역에서의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072	-.020	-.043	.600	-.022	.354
관공서의 행정의 투명성	.232	.008	-.035	.164	.799	.186
관공서에서의 시민의 문제와 요구처리 만족도	.282	.115	.169	.132	.782	.093
이웃과 주변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의 기회	.104	.022	.052	.206	.115	.825
거주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의 기회	.168	.347	.105	-.083	.265	.607
주변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여부	.307	.099	.433	.257	.014	.490
누적분산	29.11	37.00	44.21	50.58	56.45	61.93

KMO: 0.873, p<0.000

<표 4> 경제적 만족도와 삶의 행복도

측정항목	성분	
	삶의 행복도	경제적 행복도
나는 나의 생활에 대하여 만족한다.	.776	.288
만약 삶을 다시 한다면, 바꿀 것이 거의 없다.	.732	-.036
내 생활조건은 좋다고 말할 수 있다.	.722	.377
지금까지 내 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을 소유하였다.	.718	.200
대체로 나의 생활은 원하는 수준과 가깝다.	.682	.396
귀하의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	.146	.810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함	.122	.781
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325	.576
누적분산	34.76%	60.03%

KMO: 0.853, $p < 0.000$

<표 5>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명	평균 (표준편차)	문화교육	복지환경	편의시설	생활안전	행정 서비스	이웃관계	경제적 행복도
문화교육	2.74 (0.706)	1						
복지환경	2.60 (0.714)	.458**	1					
편의시설	3.11 (0.756)	.279**	.285**	1				
생활안전	2.88 (0.734)	.306**	.402**	.180**	1			
행정서비스	2.73 (0.825)	.267**	.448**	.255**	.337**	1		
이웃관계	2.78 (0.717)	.375**	.458**	.342**	.399**	.395**	1	
경제적 행복도	2.955 (0.761)	.355**	.230**	.178**	.182**	.233**	.182**	1
삶의 행복도	2.84 (0.739)	.378**	.358**	.269**	.232**	.336**	.325**	.526

* : $p < 0.05$, ** : $p < 0.01$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요인성분 1은 복지환경, 요인 2는 문화교육, 요인 3은 편의시설, 요인 4는 생활안전, 요인 5는 행정서비스, 요인 6은 이웃관계요인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표 4>는 경제적 행복도와 삶의 행복도를 구분하기 위한 요인분석결과로 경제적 행복도와 삶의 행복도의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립변수들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는데(표 5 참조),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

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은 없었다.

IV. 실증적 분석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행복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산(ANOVA)을 수행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던칸(DUNCAN) 테스트로 검증하였다.

1. 인구통계적 차이 분석

성별에 따라 변수들 간에 평균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남녀 간의 차이는 문화교육요인과 생활안전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에 비하여 여성들이 문화교육 활동과 생활안전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제주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경제활동과 여가생활 등의 문화교육적 측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밤거리와 주위환경의 위험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성별에 따른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문화 교육*	복지 환경	편의 시설	생활 안전**	행정 서비스	이웃 관계	삶의 행복도	경제적 행복도
남자	평균	2.781	2.605	3.079	3.044	2.686	2.810	2.787	2.992
	표준편차	.6920	.7004	.8013	.7033	.8852	.7204	.7319	.7514
여자	평균	2.694	2.601	3.131	2.744	2.760	2.745	2.868	2.923
	표준편차	.7166	.7258	.7154	.7315	.7691	.7137	.7448	.7685

* : p<0.05, ** : p<0.001

연령별로 삶의 행복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10대와 70대 이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와 40대에서 가장 행복도가 낮은 것

<표 7> 연령별 삶의 행복도

연령대	N	유의수준= 0.05에 대한 부집단	
		1	2
30대	213	2.7192	
40대	241	2.8232	
50대	194	2.8433	
20대	184	2.8587	
60대	65	2.8800	2.8800
70대 이상	54	2.9259	2.9259
10대	36		3.1111

F값: 1.934, p<0.000

<표 8> 학력별 삶의 행복도

학력	N	유의수준= 0.05에 대한 부집단		
		1	2	3
고졸	277	2.7069		
전문대졸	220	2.7073		
대학졸	349	2.8957	2.8957	
중졸 이하	98		2.9776	
대학원	43			3.4093

F값: 12.22, p>0.000

으로 조사되었다. 10대에서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70대 이상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만족감의 일환으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 정서적 행복감은 감소하는 반면 삶에 대한 만족도로 표현되는 인지적 행복감은 증가한다는 연구³⁸⁾와 일치하고 있다.

학력에 따른 삶의 행복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행복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특이하게도 중졸인 경우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 등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자신에 대한 유능감과 함께 어느 정도 배울 만큼 배웠다는 자신감

38) Campbell, A.·Converse, P. E.·Rogers, W. L.,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6.

<표 9> 직업별 삶의 행복도

직업	N	유의수준= 0.05에 대한 부집단			
		1	2	3	4
육체노동자	38	2.552			
기타	113	2.630	2.630		
영업직	59	2.681	2.681		
무직	66	2.730	2.730	2.730	
사무원	137	2.767	2.767	2.768	
농수산업	82	2.787	2.787	2.788	
자영업	221	2.808	2.808	2.808	
주부	67		2.928	2.928	2.928
숙련노동자	7		2.971	2.971	2.971
학생	97			3.068	3.068
전문직	100				3.188

F값: 5.601, p<0.000

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중졸 이하인 경우는 나이가 많은 연령에 속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더욱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별로 삶의 행복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직업별로 삶의 행복도는 전문직, 학생, 숙련노동자, 주부들이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육체노동자, 영업직에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직과 숙련노동자들은 직업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학생과 주부들은 부모님과 남편에게 의지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인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통계적 차이는 없지만, 무직인 경우가 육체노동자, 영업직 근무자들이 비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삶의 행복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의 수행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환경면이 가장 낮은 2.2점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조천, 구좌, 표선, 성산, 안덕면의 순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애월읍이 3.01, 제주시내지역이 2.91, 대정면이 2.89, 한림면이 2.87, 남원이 2.8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표 10> 지역별 삶의 행복도

거주지	N	유의수준= 0.05에 대한 부집단		
		1	2	3
한경	22	2.2000		
조천	48		2.6167	
구좌	41		2.6634	2.6634
표선	50		2.6840	2.6840
성산	52		2.7808	2.7808
안덕	38		2.7895	2.7895
서귀포시내	152		2.8118	2.8118
남원	44		2.8591	2.8591
한림	47		2.8681	2.8681
대정	43		2.8977	2.8977
제주시내	407		2.9096	2.9096
애월	43			3.0140

F값: 3.005, p<0.001

<표 11> 월평균소득수준에 따른 삶의 행복도

소득구분	N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1	2	3	4
200만 이하	528	2.733			
2백-3백	229	2.808	2.808		
3백-4백	129		2.996	2.996	
4백-6백	68			3.155	3.155
6백이상	33				3.230

F값: 9.992, p<0.000

에 속하나 대부분 지역이 3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주민들의 삶의 행동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면이 낮은 이유로는 편의시설과 행정서비스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으며, 애월읍이 높게 나온 이유는 편의시설과 경제적 만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라 삶의 행복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 수행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삶의 행복도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소득이 4백만 원 이상이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3점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6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23점으로 높아지고 있다.

<표 12> 소득인식별 삶의 행복도

소득인식	N	유의수준= 0.05에대한부집단		
		1	2	3
매우 낮음	122	2.5148		
낮음	254	2.5898		
중간	551		2.9361	
높음	60			3.5333

F값: 43.06, p<0.000

<표 13> 결혼여부별 삶의 행복도

결혼	N	유의수준= 0.05에 대한 부집단	
		1	2
기타	16	2.4500	
이별	50	2.4760	
미혼	310		2.7897
사별	60		2.8733
기혼	551		2.8933

F값: 5.299 p<0.000

<표 14>종교별 삶의 행복도

종교	N	유의수준= 0.05에 대한 부집단	
		1	2
불교	248	2.7589	
없음	467	2.7944	
기타	48	2.8000	
기독교	224		2.9946

F값: 4.906 p<0.002

응답자들의 소득인식에 따라 삶의 행복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으며, 예상대로 고소득 일수록 삶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월평균소득에 따른 삶의 행복도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결혼 여부에 따른 삶의 행복도에 차이가 있는가 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표 15> 다중회귀분석결과(사회적 질의 변수만을 투입)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β	표준오차	β			
1	(상수)	.908	.122		7.466	.000
	문화교육	.228	.034	.218	6.698	.000
	복지환경	.115	.037	.111	3.101	.002
	편의시설	.101	.030	.103	3.376	.001
	생활안전	.013	.032	.013	.394	.694
	행정서비스	.146	.029	.163	4.998	.000
	이웃관계	.091	.035	.088	2.560	.011

R제곱: 0.235, F값: 50.482, $p < 0.000$

예상과 같이 기혼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별한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교에 따라 전반적 행복도가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14>에 제시되어 있는데, 기독교신자들이 불교신자에 비하여 높은 삶의 행복도를 보이고 있다.

2. 사회적 질과 행복도간의 관계

사회적 질이 삶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적 질의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하고 삶의 행복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삶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질의 변수로는 생활안전요인을 제외한 문화교육, 복지환경, 편의시설, 행정서비스, 이웃관계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R제곱값: 0.235, F값: 50.382, $p < 0.000$).

경제적 만족도의 변수가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경우에 사회적 질의 변수의 영향이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제적 만족도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경제적 만족도의 β 값은 0.399로 다른 요인들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설명력을 나타내는 R제곱값이 0.379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만족도의 변수가 추가되더라도 기존에 영향요인인 문화교육, 복지환경, 편의시설, 행정서비스, 이웃관계요인은 그대로 유의하

<표 16> 다중회귀분석결과(경제적 만족도를 포함한 경우)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315	.117		2.705	.007
	문화교육	.102	.032	.098	3.206	.001
	복지환경	.108	.033	.104	3.233	.001
	편의시설	.077	.027	.079	2.856	.004
	생활안전	-.004	.029	-.004	-.145	.885
	행정서비스	.099	.027	.111	3.740	.000
	이웃관계	.100	.032	.097	3.129	.002
	경제적 만족도	.399	.027	.411	15.034	.000

R제곱: 0.379(ΔR제곱값: 0.145), F값: 85.494, p<0.000

게 남아있다. 다시 말하여 경제적 만족도가 제주도민들의 전반적 행복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질의 변수가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질이 일정부분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행복도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으면서도 행복도가 낮은 이유를 일정부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회적 질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적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의 사결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질이 삶의 행복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읍면지역별로 계층층화 표본을 추출하여 최종 987개의 설문지를 가지고 다중회귀분석으로 처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변수(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 소득인식별, 지

역별, 종교별, 결혼여부)에 따라 삶의 행복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10대의 60대 이상에서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학생, 주부 등이, 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는 애월과 제주시내권, 종교별로는 기독교에서, 결혼여부는 기혼, 사별과 미혼인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행복도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달라지는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사회적 질이 삶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생활안전요인을 제외한 문화교육, 복지환경, 편의시설, 행정서비스, 이웃관계요인 등, 대부분의 요인들이 삶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생활안전요인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반 요인들은 당연적 품질로 갖추어져야 할 위생요인과 매력적 품질 차원인 동기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활안전은 더 높은 행복을 유인하는 동기요인이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위생요인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즉 생활안전요인이 높아진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한 미비는 행복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 행복도를 추가하는 경우에 경제적 행복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높으나, 사회적 질의 변수들도 여전히 삶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행복도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만족뿐 아니라 사회적 질의 측면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먼저, 제주도민의 행복도는 사회구조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질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개인의 행복도는 개인별 기질적 차이와 삶의 경험 및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역과 지자체가 제공하는 사회적 구조 내에서 일정 정도 향상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제주도민의 행복이 세분화된 집단에 따라 다른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겠다. 여러 인구통계적 구분에서 유의미하게 다른 행복도 인식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사회 집단별 행복도 인식에 대한 현

격한 차이가 상존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로 지역사회가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질의 하위차원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매력적 품질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반면에, 기본적 충족을 주어야 하는 당연적 품질의 위생요인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단계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위생요인에 대한 구축이 완결된 상태에서 동기요인에 집중하여 제주도민의 행복도를 고양시키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만족에 대한 제주도민의 특징을 이해하여야 한다. 제주도민은 경제적 만족과 행복 사이에 선형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만족을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이 사회적 질의 측면에 대한 관리와 함께 추진되어야 하겠다. 요약하면 삶의 행복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 행정적 차원,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이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승권·장영식·조홍식·차명숙,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2008-13), 2008.
- 김운태, 『행복지수와 사회문화적 분석』, 『한국문화경제학회』 제13권 제1호, 2010.
- 박경성, 『사회적 자본과 삶이 질』, 『아세아연구』 45(2), 2002.
- 송근원, 이영, 『부산 시민의 행복 점수 측정을 위한 설문서 문항 개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7(1), 2011.
- 서울복지재단, 『세계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2006.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2006.
- 김경동 외, 『세계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서울복지재단, 2006.
- 이재열, 『한국사회의 질의 변화와 전망』, 정운찬, 조홍식 편, 『외환위기 이후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대출판부, 2007.
- 황규선, 『강원도 행복지수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12-17), 2012.
- 현대경제연구원,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2012.
- Blanchflower, D. G.·Oswald, A. J., “Happiness and the Human Development Index: The Paradox of Australia”, *Australian Economic Review* 33(3), 2005.
- Bubolz M.·Eicher J. B.·Evers S. J.·Sontag M. S., A Human Ecological Approach to Quality of Life: Conceptual Framework and Results of a Preliminary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7, 1980.
- Campbell, A.·Converse, P. E.·Rogers, W. L.,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6.
- Diener, E.·Emmons, R.·Larsen, R. J.·Griffin, 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1985.
- Diener, E.·Suh, E.·Lucas, R.·Smith, H.,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1999.
- Diener, E., Happiness Accounts for Policy Use: Is Happiness Measurable and What Do those Measure Mean for Policy?, *International OECD Conference Rome*, 2-3 April 2007.
- Easterlin, R.,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 In David, R.·Reeder, R.(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 EIU,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Quality-of-life Index*, The World in 2005,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5.
- Frey, D. S.·A. Stutzer, *Happiness and Economics*,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 Hagerty, M. R.·Veenhoven, R.,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64(1), 2003.
- Hamermesh, D. S.·J. Abrevaya, *Beauty is the Promise of Happiness?*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DP No. 5600, 2011.
- Inglehart, R.,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Kirkcaldy, B.·Furnham, A.·Veenhoven, R., "Health Car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Nations", in Antoniou, A.S.G. & Cooper, C. L.(eds) *Research Companion to Organizational Health Psychology*, Edward Elgar Publishers, Chltenham, UK, 2005.
- Maesen, L.J.G. van der·Walker, A.C.,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Theoretical State of Affairs*, Amsterdam, EFSQ, 2002.
- Myers, D., *The Pursuit of Happiness*, New-york, :Avon Books, Nord, E.(2000). World Health Report 2000, A brief Critical Consumer Guide,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1993.
- Myers, D.·Diener,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Vol.6, 1995.
- Osburg, L, *The Relevance of Objective Indicators of Well-being for Public Policy*, Annual Meeting of the Canadian Economics Association, 2004.
- Phillips, D., *Quality of Life: Concept, Policy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2006.
- Putnam, R.,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huster, 2000.
- Rudnick, A,·Kravetz S., The Relation of Social Support-Seeking to Quality of Life in Schizophrenia.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9(4), 2001.
- Ryff, C. D.·Keyes, C. C.,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9(4), 1995.

Stevenson, B.·Wolfers, J., “Economic Growth and Subjective Well- Being: Reassessing the Easterlin Paradox”,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Economic Studies Program, The Brookings Institution, vol. 39(1), 2008.

Veenhoven, R.,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58, 2002.

Walker, A.C.·Maesen, L.J.G., “Social Quality and Quality of Life”, The Hague, London,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4.

국민일보, 2013년 1월 8일자.

Abstract

Influencing Effects of Social Quality on the Residents in Jeju Province

Kang, Jae-Jung*·Cho, Boo-Yun**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casual relationships among economical satisfaction, social quality, and happiness recognition of residents of Jeju province. We surveyed 987 respondents based on stratified sampling, and applied t- test and ANOVA tes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Jeju province. Also, the results from regression analysis suggest meaningful antecedents to elaborate happiness recognition. We learn the difference for happiness recognition by gender, age, occupation, income, and perceived social class. And the social quality has been emerged as the antecedent to influence happiness recognition with its sub-dimensions of cultures and education, welfare, convenient facilities, public service, and relationship towards local community. Also, economical satisfaction improves happiness recognition with no disturbing influenc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quality and happiness recognition. Considering the different effects of sub-dimensions of social quality, we suggest more detailed approach when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Jeju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Jeju National University.

to enhance social quality. And we recommend more efforts to invigorate the local economy with the lesson of coexistence of economical satisfaction and social quality in improvement of happiness recognition for residents of Jeju province.

Key Words : happiness recognition, quality of life, economical satisfaction, social quality.

교신 : 조부연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E-mail : bycho@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3. 08. 29.

심사완료일 2013. 10. 04.

게재확정일 2013. 10. 23.